

朝興電機産業(株), CE인증 마크 획득

국내 용접기 시장을 주도해 온 朝興電機産業(株)(代表: 崔伯奎)가 1996년 10월 10일 아크, 저항용접기 부문에 있어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또 다시 용접기 관련업계 최초로 독일 TUV Rheinland 인증기관으로부터 금년 1월 29일 저항용접기 Transformer인 PORTABLE T/R(PT-A-125-EU: 125KVA), MULTI T/R(MT-125-EU: 125KVA)과 용접컨트롤 시스템인 TIMER & CONECTOR(DSTC-YII-EU)에 CE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점차 유럽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데에 따라 조흥전기 산

업(주)도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CE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CE인증 마크 획득을 위해 ISO 9001 품질시스템 운영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7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ISO 9001 품질보증시스템이 고객만의 실현이며 국제화에 걸맞는 운영 체계라고 한다면, CE인증은 국내 제품의 세계화 인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조흥전기산업(주)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미 중국 심양에 조흥 용접설비 유한공사와 판매영업소를 설립하여 용접기 부품생산은 물론 용접기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起人시스템(株), 피크전력 원격제어장치 EM마크 획득

여름철 피크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최대전력관리장치가 국내에 개발됐다.

起人시스템(株)(代表: 李起元)가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국가적인 전력 수급상황과 연동돼 수용가의 피크전력을 원격제어

하는 「차세대 전력수요관리시스템」의 개발에 성공 최근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우수품질인증(EM)마크를 따냈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전력수요관리시스템」은 지난해에 기인시스템이 개발, 신기술(NT)마크를 획득한 「디맨드컨트롤러」에 신기능을 추가한 제

품이다. 한국전력 거래용 전력량계에 접속 부착돼 피크전력을 스스로 판단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디맨드컨트롤러에 국가적인 전력 수급과 연계해 수용가의 피크전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수요관리기능이 포함된 것이다.

디맨드컨트롤러는 피크전력을 20%가량 절감할 수 있는 절전장치로 그동안 개별수용가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여름철 특정시간대에 발생하는 최대피크일의 전력수급과 연동돼 동작되지 못함에 따라 전력수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차세대 전력수요관리시스템」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용가 장치와 한전의

센터장치가 온라인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장치가 전국의 1백kW이상급 전력 다 소비 업체에 1대씩 설치될 경우 약 2백만 kW의 피크전력절감이 가능하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기인시스템 이사장은 이번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한전계량기와 계량값이 일치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한국과학기술원측과의 산학협동연구를 통해 최신 영상인식기술로 해결했으며 「NT마크와 EM마크를 동시에 획득한 국내최초의 제품이 됐다」고 말했다.

大元電線(株), 엔케이그룹에서 인수

大元電線(株)(代表:李浩植)가 엔케이그룹인 엔케이텔레콤에 전격 인수됐다.

통신전자장비 업체로 알려진 엔케이그룹의 이번 대원전선 인수 배경은 12개 계열 기업 중 8개가 정보통신 업체에서 대원전선을 정보통신용 광케이블 생산업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엔케이텔레콤은 지난해 독일 RXS社의 열수축관과 광케이블 접속관에 대한 독점 판매

권도 대원전선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기술제휴를 통해 광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엔케이텔레콤의 대원전선은 올해 매출액을 전년도 보다 15.4% 증가한 1천억원, 순이익을 119.2% 늘어난 2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또한 수출 비중도 5%에 머물고 있으나 엔케이그룹의 9개 해외현지 법인을 통한 판매로 수출 비중을 크게 늘린 방침이다.